

## 충청본부, 호남고속철도 시승행사 개최

-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직·사무직간 소통의 시간 가져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앞둔 지난 3월 26일, 충청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승행사를 가졌다.

호남고속철도 KTX열차는 오후 3시 10분에 오송역을 출발하여, 광주송정역까지 182.6km를 54분 만인 오후 4시 4분에 도착하였다.

광주송정역에 설치된 호남고속철도 홍보관을 관람한 후 다시 오송역으로 돌아온 일정으로 참여한 한 충청본부 직원은 "많은 직원들이 노력하여 만든 결과인 시승"이라고 말했다.

300km 열차에 탑승하니,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조금이나마 일조하였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지는 느낌입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노병국 충청본부장은 "이번 호남고속철도 시승행사는 충청본부 직원들이 고속철도라는 큰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할 자부심과 함께, 사무실을 벗어나 직원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더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하였으며, 앞으로 개통하는 사업에 시승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본부 안세한 기자>

## 호남본부, 임직원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24일부터 6개월간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은 직원들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상호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순천시보건소 금연상담사가 호남본부에 직접 찾아와 상담과 검진결과에 따라 금연교육 및 금연보조제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개별상담을 통해 임직원의 금연성공을 돕는다.

주 2회 총 6개월간 진행되는 금연클리닉에는 모두 15명의 직원이 참여해 담배 끊기에 나섰다. 본부 관계자는 "금연클리닉으로 참여자 전원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독려해 '금연 사업장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호남본부 문혜진 기자>

## 신입직원-멘토간 '화통(和通)한 화통(話通) 행사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작년 12월에 본부에 배치된 3명의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입직원과 멘토간 화통행사"를 3월 24일(화)가졌다.

이날 행사는 멘토링활동을 마무리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호남고속철도 시승행사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호남고속철도 열차 안에서 진행된 자유토론은 멘토링활동에 대한 소감과 신입직원들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발언이 이어졌다.

사업지원부 문혜진 사원은 "멘토링을 통해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닌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고, 용지부 장한나 사원은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공단의 인지도가 낮아 아쉽다."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단의 이름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고 공단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호남본부는 작년 12월에 본부에 배치된 4명의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1:1 멘토로 지정하여 신입직원의 조기 조직적응 및 업무숙달을 지원하고 있다.

<호남본부 김광석 기자>

## 호남본부, 철도건설현장 특별안전교육 실시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2015년 철도건설현장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다.

3.24일 2층 교양실에서 진행된 특별안전교육에는 공사관리관 및 현장 감리단, 시공사 직원 등 90여명이 참여했다.

호남본부장은 강연을 통해 "철도공사의 복잡적이고 다양한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현장 근로자들이 긴장감을 갖고 작업"을 개선하여 이를 극복하자"고 하였고, "사고발생시에는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운행선 인접공사는 단락동선을 설치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알리미 앱을 통해 신속한 보고"를 재차 당부하였다.

이날 교육은 "철도건설 안전품질환경관리",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철도안전법"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 안전의지를 다졌다.

<호남본부 강철훈 기자>

## 국토부 유일호 장관님, 끊어진 경원선 구간 순시!

- 남북철도 연결사업 추진은 미래 다가올 통일 준비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이 6.25 한국전쟁으로 끊어진 남북철도 복원 준비를 위하여 경원선 남측구간에 지난 2015년 3월21일(토) 현장 순시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은 백마고지역, 철원역, 월정리역 등 경원선 남측 철도 단절구간을 방문하여 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의 보고를 받으면서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등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실질적인 통일 준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원선 복원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연결하는 의미를 넘어서 통일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가까운 미래의 유라시아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는 뜻 깊고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평화전망대로 이동해 철원군수,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지역현황 보고를 받고, 건의사항 청취 및 장병들의 위문으로 순시 일정을 마쳤다.

<수도권본부 김한묵 기자>



<월정리역 방문>



<공단 수도권본부장 철도 현황 보고>



<경원선 노선도>